

문제. 오늘날 ‘색깔’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널리 사용됩니다. 그러나 색각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므로, 색깔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접근성 차원에서 문제가 됩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의 디자이너 미구엘 네이바는 기초적인 도형을 이용해 색깔을 표현하는 체계인 ColorADD를 만들었습니다. 색깔로 신호를 구분하는 신호등, 지하철 노선 등의 시스템에서 ColorADD가 함께 사용된다면 모든 사람이 신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다음은 ColorAdd로 표현한 색깔의 예시입니다.



- (1) 신호등의 세 가지 색을 ColorAdd로 표현해 봅시다.
- (2) 다음을 올바르게 짝지어 봅시다.



- (3) ColorAdd 방식으로 회색은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. 모두 제시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봅시다.

— 브루누 라스토리나, 샤를리스 라스토리나, 루이자 피리스,
 브라질 언어학 올림피아드 Paraplü (2012-13) 1차 1번
 (번역: 김강래)

문제. 로마자로 전자된 라코타어 단어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.

kīza	단일한 높은 음조의 소리들
žata	(길 따위가) 두 부분으로 갈라진다
šuža	심하게 멍들었다
yi	갈색이다
mⁱniža	구불구불해졌지만 다시 반듯하게 펼 수 있다
g^eleza	(꼴로)선이 그어져 있다
nuya	(나무의 웅이와 같이) 딱딱하고 움직일 수 없다
mⁱniya	되돌릴 수 없이 오그라들었다
zi	노란색이다
šli	걸쭉한 액체가 짜내어지고 있다
kīža	(지저김과 같이) 혼성된 높은 음조의 소리들
g^eleya	(■■■■ 꼴로) 줄무늬가 있다

(1)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된 다음 단어들과 그 한국어 번역을 알맞게 짝지어라.
k'eya, k'eza, p^hšniža, suza, xuya; 불꽃이 튼다, 부서져 있다, 표면이 굽혀 있다,
 약하게 멍들었다, 표면이 문질러져 있다

(2) 라코타어로 번역하여라.

- 묽은 액체가 짜내어지고 있다
- (피부 아래의 커진 분비선과 같이) 부드럽고 움직일 수 있다
- 시뻘겁게 달궈져 있다
- (연골과 같이) 반쯤 딱딱하고 움직일 수 있다
- 여러 방향으로 갈라진다

(3) 라코타어 단어 **ži**의 의미를 설명하여라.

△ 글자 **x**는 한국어 단어 ‘흙’의 ‘ㅎ’과 유사한 자음이고, 글자 **y**는 **x**와 같으나 유성음이다. **š**는 ‘시’와 유사한 자음이고, **ž**는 **š**와 같으나 유성음이다. 글자 **k**, **p^h**와 **i**, **i**, **e**는 각각 라코타어의 특정한 자음들과 모음들이다.

라코타어는 수어족에 속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로,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6000명이 사용한다.